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부활 시기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 13)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금) 19:3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금) 20:0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견진 교리

2024.4 월 2 주
(견진 보강 교육)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10 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금)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주소 변경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5/ 5(일) 부활 제 6 주일 생명주일 (본당 11:30, 공소 미사 없음)
▶5/ 7(화) 부활 제 6 주간 화요일(본당 20:00)
▶5/12(일) 주님 승천 대축일(본당 11:30, 공소 17:30)
※성수 예식과 5 월 세례 축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당 견진성사에 해밀턴 교구의 보좌주교님, Wayne Lobsinger 과 부제님,
한택중 막시모께서 축하해 주십니다.

◎축하합니다.

최샤니 세실리아, 정가현 라파엘라, 이준규 안드레아, 최아현 베로니카
윤은주 클라우디아, 이은영 힐데가르트, 김지현 아네스
채예준 다니엘, 채병두 베네딕도, 유근상 힐데베르트, 김민정 안젤라
송찬 아론, 최두원 스테파노, 최다인 안나, 이상은 엘리사벳, 송현경 에바
송지은 리카르다, 정철 베네딕도, 박채원 세라피나, 박서준 베드로
(이상 20 명)

◎성모회 모종 판매

▶5/12(일) 모종 판매합니다. (\$2.50)
아삭이고추(4), 파리고추(4), 청양고추(4), 상추(4), 깻잎(4)
대파(3) , 호박(1), 오이(1), 가지(1),

◎교구청 특별헌금

5/5(일) 교황 성하를 위한 헌금이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해 주실
주일학교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문의: 박혜영 수산나

◎ 해밀턴 성 유대철 본당 30 주년 축하 골프대회
▶ 일시: 6/29(토) 오후 12 시
▶ 장소: Southbrook Golf & Country Club,
4349 Hamilton Regional Rd 56, Binbrook, ON L0R 1C0
▶ 참가비: \$130
(그린피, 파워카트, 기념품, 점심/저녁식사포함)
▶ 접수및 문의: 김한욱 (에릭) 행사분과장
** 많은 관심과 기도, 물질 후원 부탁드립니다

공소 소식

▶꾸리아
일시 및 장소: 5/19(일) 13:30 하상실

구역 소식

1 구역: 5/11 토 10:30 친교실
2 구역: 5/18 토 11:00 친교실
3 구역: 5/18 토 12:00 친교실
4 구역: 5/19 토 13:00 친교실
5 구역: 5/18 토 17:00 김창욱 세바스티아노 형제 덕
6 구역: 5/11 토 17:00 김의수 안드레아 형제 덕
7 구역: 5/11 토 18:00 이미란 아네스 자매 덕

천교 식사

5/ 5: 3 구역(비빔밥 무료)
5/12: Mother's day 5/19: 4 구역 5/26: 5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41 명)

주일헌금

\$1445

교무금

\$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220

※교구특별헌금 \$50

감사합니다.

부활 삼종 기도

(5/19 성령강림대축일까지)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十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5 월 본당 축일자(20 명)

5/ 3 제임스(주승재), 필립보(오세준), 안나(김지선)
5/ 4 올리비아(최은)
5/ 5 안젤라(박종은)
5/ 12 판크라시오(엄재준)
5/ 14 마티아(홍인섭, 이재상, 이재현)
5/ 18 에릭(김한욱), 모니카(윤정자)
5/ 22 줄리아(홍서희)
5/ 24 요안나(강지원, 권희진, 김창숙)
5/ 25 세레나(박연화)
5/ 26 마리안나(조미연), 수산나(신용숙), 에바(송현경)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5/ 5	김의수 안드레아	최다희 보나 최다혜 플로라 유세진 라파엘 이준서 요한	1 독서: 정철 베네딕도 2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이인선 쯔마 박규혜 카타리나
5/12	임연신 비아	최두원 스테파노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김한욱 에릭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정철 베네딕도 이은영 힐데가르트
5/19	박규혜 카타리나	송찬 아론 이준우 바오로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김한욱 에릭 강지원 요안나

서로 사랑하여라

이차룡 바오로 신부
밀양성당 성사 담당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요?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우리들의 사랑법은 ‘Give & Take’ ‘주고받는’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사랑법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최고 경지의 사랑법입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음을 넘어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왜 친구를 위한 사랑이 원수나 죄인을 위한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였을까요? 대체 친구가 누구이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친구를 존중하고, 무례하지 않고, 친구의 약점을 참고 견디며, 비난하지 않고, 배신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만큼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계명에 충실할 때 가능하지요. 주님처럼 옆에 있는 동료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경지에 도달할 때 비로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말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당에 서로 사랑하는 신자들이 있을 때에 주위에 있는 비신자들에게도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지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만 친구요 사랑이니 노래하지 말고 진정 내 옆에 있는 교우와 사제들, 형제와 가족을 참 친구이신 예수님처럼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아프게 성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부활 제 6 주일

생명주일

(2024. 5. 5.)

제 1 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10,25-26.34-35.44-48

화답송 시편 22(21),26 ㄴ-27.28 과 30 ㄴㄴ.30 ㄴ-32(◎ 26 ㄴ 참조)



후렴.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 2 독서 요한 1 서의 말씀입니다.4,7-10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복 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5,9-17